

사 설

우리나라보다 비교적 못사는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류 열풍이 중국을 거쳐 경제대국이라고 자처하는 일본까지 휩쓸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높은 유럽까지도 한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머지않아 전세계가 한류라는 '열풍'에 휩싸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한류는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고도성장 신화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성세대들에게는 불성사납다고 할 수 있는 시시콜콜한 사랑이야기를 다룬 가을동화, 겨울연가 등의 드라마가 한류를 불러왔다. 시각에 따라 다소 천박해보일 수도 있는 '엉덩이 춤'이 한류를 불러온 것이다.

따라서 한류는 그동안 하드웨어적인 성장을 중시해온 우리에게 소프트웨어적인 발상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다. 대규모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살피고 삶의 희노애락을 달래는 사업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류의 바람이 부는 곳은 외국이지만, 그에 따른 이익은 국내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드라마를 통해 한국 연예인의 팬이 된 외국인들은 단순히 텔레비전 시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배우가 출연했던 드라마의 촬영지를 직접 찾고 있다.

가까운 속초시의 경우를 보면 가을동화의 촬영지였던 청호동은 드라마가 종

지역 명소 복원해 관광자원화 하자

영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남아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 이들 외국 관광객들은 주인공이 끝난 깃배를 끌며 사진을 찍고, 아무런 볼품도 없는 구멍가게에 들러 물건을 사기도 한다. 겨울연가의 남이섬도 비슷하다.

우리 고성지역에는 이러한 한류의 수혜를 보는 곳이 없지만,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충분히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어 한류 못지않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선유담과 능파대 등 '명소'들이다. 발상을 전환하면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이러한 명소들을 훌륭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선유담의 경우 고려시대 안축을 비롯해 조선시대 송강 정철과 단원 김홍도 등 수많은 학자와 시인묵객들이 시와 그

아직도 선유담 현지에 가면 우암 송시열 글씨를 비롯해 가학정 터와 기와 조각, 연못 중심지 흔적 등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하면 한낱 역사속에서만 존재하는 명소로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런 명소들을 복원해 후손에게 물려주는 동시에, 관광자원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방향으로 복원하자는 것이다.

최근의 관광패턴은 먹고 마시는 형태에서 벗어나, 체험하고 삶의 교훈을 얻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신라 화랑들이 유람을 즐기던 곳에서, 옛 관리들이 학을 타고 놀았다'는 곳에서 그윽한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한다면 관광객들을 충분히 불러모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성군은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도 문화재 지정 등을 전제로 복원에 나서기 보다는, 우선 소규모 군비를 들여 명소를 살리고 인근 지역의 관광활성화도 가져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자에 따라서 견해는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의 일생을 다섯가지 욕구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생리적 욕구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장난치고 싶을 때 장난치면서 자연스럽게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면서 자란다.

둘째는 학문적 욕구다. 청소년기와 청년기에는 지적인 욕구로 학교에 다니고 학문에 몰두하면서 보다 넓은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탐구에 전념하면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밤잠을 자지 않고 독서 삼매경에 빠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인간의 일생에 다섯가지 욕구

셋째는 재물적 욕구다. 어느 정도 학문적 욕구가 이루어지면 많은 부를 창출하고 싶어서 좋은 직장을 찾고 많은 월급을 갈망하며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며 안락한 생활을 누리려고 싶어한다. 자녀들에게 메이커 있는 옷을 사주고 싶어하고,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고 아주 우아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기를 좋아한다.

이것이 채워지면, 넷째는 권력적 욕구다. 물론 남자와 여자는 본능적으로 조금

남숙희 칼럼

칼럼위원(시인)



“귀향하여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은 사람들이 너무 남의 일에 간섭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이었다.”

가을의 길목에 서서

씩 다르긴 해도 돈의 욕구가 채워진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권력을 잡지 못하더라도 본인의 명성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한다.

이러한 욕구들을 다 경험한 후 마지막은 자아성찰의 욕구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세상이라는 곳에 와서 무엇을 했으며 신(神)은 존재하는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즈음 나의 화두(話頭)는 '하루다운 노후'이다. 위에서 열거한 욕구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자아성찰의 시간이 온 것 같다. 그래서 생활의 지표로 삼은 원칙들을 설정해 보았다.

우선 '입장 바꿔 생각하기'다. 귀향하여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은 사람들이 너무 남의 일에 간섭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이었다. 귀동냥한 정보로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상처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 모든 그런 일들에 무관심하게 되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논리에 접근하게 되었다. 이제는 사소한 일이라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서 흥분하거나 노하거나 약오르는 일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조금씩 '내려놓기' 연습을 한다.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늘고 있다. 가을 들녘에는 그렇게도 쉬임없이 내리던 빗소리도 그치고 어느새 맑은 햇빛

속에 벼알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다. 빨간 고추를 따는 아낙네의 손길은 감사와 고마움으로 떨리고 있다.

조금씩 '내려놓기' 연습

삶은 축복이다. 나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구체적 삶의 목적에 대해 해답을 찾아야 할 시간이다. 헛되고 부질없는 삶의 껍질을 벗기고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인생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때다.

인생의 오후에 가을이 오고 있다. 이 길목에서 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파스 한 가슴을 전하고 싶다. 가을이여! 사색의 계절이여!

◇편집국에서

○...지난 3년간 고성군민들을 안타깝게 했던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 문제가 지난 20일 재확정됐다. 토성면 도원리 일대 38만㎡에 의정연수원이 건립되면, 고성 발전에 큰 이익이 될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앞으로다. 국회는 우선 내년 예산에

설계비 10억원 가량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말 그대로 계획에 그쳐서는 결코 안된다. 고성군은 내년 예산에 반드시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지난 2008년 4월과 같은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최낙관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